

- 새소망의 달:** 12월은 새소망의 달입니다.
- 각기관 총회:** 각기관이 임원을 선출했으나 몇몇 여전도회 기관이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금주내로 선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작업이 시작되었으니 금주내로 선출하여 완료바랍니다.
- 2009년 추계부흥회:** 오늘 저녁 7시부터 9일(수) 저녁까지 안양신일교회 윤광중목사님을 모고 부흥집회를 갖습니다. 영혼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여기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참석바랍니다.
 >오후예배는 저녁예배로 변경합니다. 오후시간에는 전교인 전도합니다.
 >집회시간은 저녁7시, 오전10시30분, 새벽5시입니다.
- 집회헌금:** 금번 집회헌금은 수요일 밤예배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작성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객세종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다음주는 송희중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 각반 성경공부:** 오늘은 각 기관이 주변 아파트 전도와 함께 기관내 결석자를 심방하여 모시고 집회에 참석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11일 금요기도회는 새기관임원을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저녁8시).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시행 일자별로 정했습니다.
 >각자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 접견실 및 기도굴에 온열난방 설치).
 >금주담당자: 양혜숙, 김점자, 김숙경, 허경자, 방봉순, 황생자, 권화숙
- 전라어린이대회:** 지난 전라대회에서 유치부 강수빈외4명이 노래울동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월에 있을 전국어린이대회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 새기관장 산상기도회:** 오는 12월11일(금)에 새롭게 선정된 각기관 임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오후5시까지 교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서:** 나누어드린 자원서에 2010년 일할 부서를 선택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안수집사모임:** 낮예배 후 12시40분에 1층 안수집사실에서 모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새기관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주일심방:** 김명관 송희중장로, 임춘진 이정자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 입원성도:** 성심병원(윤정희집사-319, 김금례집사-316, 최봉주성도-311)
 조대병원(조춘자성도)

새소망의 달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롬12:12)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추계부흥성회

12월은 새소망의 달

-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종 송희중 옥 룡 김중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김문옥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 옥룡,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 객지혜 · 이은혜 【마리아성가대】 ◆대장: 김태석, 지휘: 김유영 ◆반주: 전미영 · 계경숙	12/1-7 제122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 12/6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6-9 심령부흥사경회(윤광중목사-안양신일교회) 12/13 새기관장 헌신예배, 정기제직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0 정교회육위위원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24 성탄축하행사(24일), 성탄축하새벽찬양(25일) 12/25 성탄축하예배(25일) 12/27 주교졸업예배, 월례회, 전기관 결석회원 심방 12/31 송구영신예배
--	--

-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 ◆외국인근로자담당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홀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섭김이	인도자
9279	정해중	4남	18	삼라마이더스103-1505	010-3316-0307	김담호	김전영
9280	이순옥	8여	16	다사로움A 108-1404	010-4533-5580	전준이	전준이
9281							
9282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회자
*개회송영 ... 성가대
*기원 ... 사회자
*찬송 ... 23(통23) ... 다같이
*성시교육 ... 십계명 ... 다같이
*사죄확신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545(통344) ... 다같이
기도 ... 1부 윤석장로
2부 이준호장로

성경봉독 ... 막11:20-24(신74)

찬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 ... 다같이

찬송 ... 365(통484) ... 다같이

봉헌 ... 다같이

감사기도 ... 설교자

*주기도송 ... 다같이

*축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28(통48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주일 오후 예배

[심령부흥사경회]

저녁 7시 사회: 손종기 목사
설교: 윤광중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이준호 장로
성경봉독 / 요 1:47-51(신143)
찬양 / 할렐루야 성가대
말씀선포 / 윤광중 목사
"참 이스라엘, 거짓 이스라엘"
찬송 / 303(통403) / 다같이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오후7시~8시(사도행전)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 사회: 손종기 목사
설교: 손종기 목사

찬송 / 183(통172) / 다같이
대표기도 / 최상윤 장로
성경봉독 / 삼상 3:1-14(구412)
찬양 / 할렐루야 성가대
말씀선포 / 윤광중 목사
"뜨는 해, 지는 해"

찬송 / 184(통173) / 다같이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부흥집회

12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장기술
	2부	김종철 박의하 장승준
안내	조윤기 서진욱 박동수 이건욱 김준영 박종관 김영산	다음주일 낮기도: ◆1부 옥 룡 장로
	조선경 문채숙 김숙자 김숙경 권희숙 김순신 김점덕	◆2부 이동만 장로
	서정옥 송숙란 신은숙 양선숙 우숙희 이현순 정순영	다음주일오후기도: 새기관장 헌신예배
	전운선 계경숙 양재숙 강춘자 정영욱 김혜경 김혜진	다음삼일사회특송: 조선경권사(7구역)
	양은옥 정영순	다음주 삼일밤기도: 장현자 권사
		금주 12/12(토)청소: 여호수아, 리브가
		이번주(6)식사당번: 4, 5, 6 구역
		다음주(13)식사당번: 7, 8, 9 구역

다음주일 낮기도: ◆1부 옥 룡 장로
◆2부 이동만 장로
다음주일오후기도: 새기관장 헌신예배
다음삼일사회특송: 조선경권사(7구역)
다음주 삼일밤기도: 장현자 권사
금주 12/12(토)청소: 여호수아, 리브가
이번주(6)식사당번: 4, 5, 6 구역
다음주(13)식사당번: 7, 8, 9 구역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김혜경	6	11000		정은섭	김요상	954-3319	남도시민교회/5만
	2	김승미	8	14000	72	허동숙	양혜숙	951-2437	곡성교회/15만
	3	임태례	4	9000	30	정영순	송희중	953-7579	서부은광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교회	2	5000		신은숙	김태석	434-2827	나주신광교회/5만
	5	교회	4	12000	69	교회	이현일	952-5880	서림교회/5만
	6	신점례	5	8000	20	김영례	이동만	953-0774	겸면중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육영란	3	4000		윤경순	조선경	952-1672	심미교회/5만
	8	박의하					박의하	954-4684	광덕교회/5만
	9	진준호	6	6000	30	양재숙	진영만	434-2902	연화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교회	3	4000		공점례	신애란	452-2038	장산중앙교회/5만
	11	전영숙	5	10000	30	전윤선	최상윤	384-8475	연동은광교회/5만
	12	손문옥					손문옥	962-6487	운남평화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김숙경	7	8000	170	김천대	김숙경	956-5064	구름다리교회/5만
	14	유지춘	3	5000	27	박병심	서향임	951-2785	경동교회/5만
	15	이옥순	3	3000		최경순	최옥기	955-8951	금호동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김미숙	3	3000		전순이	김숙자	447-5214	영광교회/5만
	17	조윤기					조윤기	954-3784	장흥용산중앙/5만
	18	교회	3	3000		정순영	옥 룡	430-2360	노력도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문일환 목사/5만
	20	이준호	3	10000		이동만	이준호	952-8590	세계포도원교회/5만
	21	양인숙	4	9000		백인숙	한만희	956-0484	삼기중앙교회/5만
제8지구장 박세종장로	22	김문옥	6	6000		장현자	김문옥	954-2660	남악신광교회/20만
	23	전순이	3	9000		이기영	나오임	070-7522-8550	군선교연합/5만
	24	우숙희	5	12000		전오례	김종철	953-9917	반석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종장로	25	박명진	5	5000		김은경	서점순	961-8640	오치은광교회/10만
	26	정수경	7	9000	42	이정해	안영철	01050437055	기독교 방송국/15만
	27	이영희	2	4000	23	손우정	손종기	962-3301	기독교 방송국/15만
제10지구장 옥 룡장로	28	교회	4	4000		교회	서진욱	413-5357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8/1	정현아	3	6000		허성복	전순이	01029997540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9	김막녀	3	7000	45	김경식	김성훈	952-3304	
제11지구장 김중철장로	30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조윤기	954-3784	
	31	권사회				권사회	이정자	952-9380	
	32	중등부				중등부	양지수	431-1198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제12지구장 손종기 목사	33	고등부				고등부	이지훈	962-7727	
	34	은광아남	25	10000		어린이집	임현옥	954-2360	
	35	대학부				대학부	진근모	01036852902	
제13지구장 최지혁부 목사	36	청년회				청년회	이현복	0116066073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37	백두산업				백두산업	양순희	(055)964-1412	
	38	영연스쿨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39	교회	4	8000	120	교역자	최지혁	385-1320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하는 작은 선택부터,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사람과 일을 할까하는 큰 선택까지 이 모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선택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매우 신중히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행13:2).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 등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뜻에 맞게 적절한 일꾼을 선택하시고 배치시키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투표를 해서, 내가 일꾼을 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에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부르십니다(행13:1).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온전케 할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아의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등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 말씀의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며,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3.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깨끗이 헌신된 자를 직분자로 선택하십니다(행13:4).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직분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뜻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직분자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그중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여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헌신된 자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신실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 신앙의 형태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속해 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속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세속화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앙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 1)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합니다.
- 3)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 곧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합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1)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 2) 위에 것을 바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 3)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인격을 지니신 분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피차 일치점을 찾아서 동의하고, 발전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해서는 거짓 없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3.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1)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 ① 사사로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약 4:2, 3),
- ② 인간적인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고후 1:19,20),
- ③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참조, 롬 8:32)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합니다.

2) 사랑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 삶 전체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맺는 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인간들을 신뢰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앙은 현대 사회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불신 풍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인간 사이에서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성도의 생활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무미건조한 삶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기도는 세상의 어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며, 안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옆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귀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당시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 개혁의 횃불을 든 용기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능력보다는 순종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주여! 많이 명령하십시오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는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초대 안디옥교회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107년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형이 임박하자 성도들은 그의 구명을 위하여 총독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찢기어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면서 성도들을 만류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하15:22)는 말씀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적 어둠의 세력들이 국가와 교회를 파괴하려고 도전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나, 기관의 임원을 맡으신 분들이나, 구역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 예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었던 베데스다못가의 병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가 “어보세요 선생님! 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왜 누워 있겠습니까?” 라고 항의만 하고 움직여보지도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력을 다하여 일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났고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먼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논리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 “먼저 건강을 주세요! 봉사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뀐 순서로 주님께 요청하는 그릇된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이 강둑에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계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법계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범람한 요단강물은 사르단에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심지어 기적을 동원하시기까지 하시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제일 힘들 때는 교회를 섬기는 일군을 선정하는 12월입니다. 일군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부흥 성장 되고 부서와 구역과 기관이 부흥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일군을 선정할 때 제일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귀합니다. 교회에는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경험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군이 필요합니다. 맡겨 놓으면 벤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이 울면서 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사명을 다 하려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일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천구년 십이월 칠일
담임목사 손종기

뿌리 깊은 신앙



겨울이 다가온 지금도 나무들은 한창이다. 잎 피우던 봄이나 꽃 피우던 여름, 열매 맺던 가을에 비해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성기다. 서리 맞아 옷 벗었으나 다시 찬란한 옷을 입고 그 위대한 새날을 준비하려 땅 밑 겹손의 자리로 내려가 일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땅의 온기와 영양가를 찾아 원뿌리를 더 강하게 하고 작은 뿌리를 더 신나게 빨게 한다.

차고 넘치는 뿌리 힘으로 추운 지상의 나무를 따듯하게 한다. 아주 작은 세상 가지 끝이 북풍한설에 흔들리고 얼어 죽을 정도가 돼도 봄 희망을 품고 살도록 돕는다. 겨울나무는 죽었으나 이런 뿌리 작업으로 살고 있다.

처음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가 박해하는 황제들에 의해 끝나는 듯했지만 지하 카타콤베 성도들의 뿌리내리기로 다시 일어나 로마와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가 됐다. 주님은 3년간 일하기 위해 30년간 뿌리내리셨고,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바울은 쉬지 않는 기도(살전5:17)로 살았다. 성도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먹감나무 은총



“감은 딸 때 가지를 꺾어 한 알 한 알 따는데 가지마다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 상처로 빗물 같은 것이 스며들어 이루어진 검은 멍 자국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먹감나무 무늬지요.”(전우의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 옵디까’에서) 사람은 세월의 나이테만큼 상처를 쌓아 갑니다. 세월이 늘어갈수록 거칠어지고, 독선으로 가득 차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먹감나무 같은 깊은 사람, 고결한 영혼의 사람, 있기만 해도 따듯함이 느껴지는 사람. 12월은 바로 그런 은총을 기다리다 마침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교역자 : 손종기 최지혁 문종승 김성훈 전순이
 장로 : 김태석 옥 룡 윤 석 김희중
 안수집사 : 한경택 김영근 조윤기 최재현
 권사 : 서금자 이정자 김동해 이봉순 임춘진 방정원 이귀님 진윤희
 집사 : 손동욱 강성명 김영미 이금동 김영숙 서정옥 이남순 김정순 김혜진 김혜경
 이현복 양기형 김달삼 최성자 송숙란 김담호 손상원 김경애 허성복 김경식
 양선숙 김천대 이병욱 김변순 강춘자
 ♡♡♡♡ : 양정순 이성노 김유연 김진선 이영선 유병남 강미순 이영희 이대성 옥승주
 김덕수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최지혁
 장로 : 김태석 옥 룡
 안수집사 : 최재현 김영근
 권사 : 이귀님 김숙자 박경남
 집사 : 김인숙 송숙란 김 호 오금례 김지현 손상원 강춘자 한정자 박은원 김혜경
 김상규 김부현 방연혁 황애자 유수종 진준호 김판심 육영란
 ♡♡♡♡ : 허동숙 이영희 강미순 이영선 유인녀 기연님 옥승주 노병호 원수남 정해정
 김양덕
 대심방 : 방봉순 양인숙

● 선교헌금

교역자 : 최지혁
 장로 : 김문욱 옥 룡 김희중 윤 석 김종철 이동만
 안수집사 :
 권사 : 김동해 임춘진
 집사 : 전오례 김영숙 김상규 손상원 김 호 김인숙 조정화 김천대 김담호 이은경
 ♡♡♡♡ : 리브가 제4여

● 복지헌금

방정원 윤 석 옥 룡 손종기 이영희 김성훈 강미순 리브가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김숙경 최순희 양재숙 김종철 송희중 김천대 이정자 김재한 이재연 이재성 김영월
 박점순 조윤기 김바다 최선규 허천중 김숙경 옥 룡(마이크)



100가지 기도응답의 비결

61. 끈기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것은 한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어떤 것은 일평생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62.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십시오.

구약성경의 한나는 고상한 기도제목은 아니었지만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맞볼 수 있었습니다.

63.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간구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간구 하는가 보다 중요합니다.

64. 기도의 응답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려는 것에만 집착하면 마음을 쏟는 기도해 도 하나님은 안 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즐거워하십니다.

65.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삼상 17:34,35).

66.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모독입니다.

67.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세상에서 할 일 없고 기력이 쇠한 사람이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68.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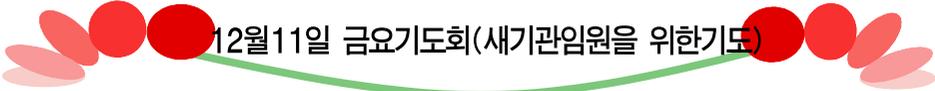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을 도적질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69.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70. 달변의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청산유수로 말하는 달변의 기도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참회하며 겸비해진 마음이 가득한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2월11일 금요기도회(새기관임원을 위한기도)

★ 제2차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순번	일자	성명	비고	순번	일자	성명	비고
1	10/6일	손종기	010-7283-8291	37	11일	박동수	010-5602-7559
2	7일	최지혁	010-3615-1638	38	12일	김용신	010-3008-6567
3	8일	문중승	010-7617-4070	39	13일	이귀님	062) 952-8590
4	9일	김성훈	016-627-7655	40	14일	임춘진	011-604-8516
5	10일	서향임	018-629-2785	41	15일	김신자	010-7752-8667
6	11일	전순이	010-2999-7540	42	16일	서금자	016-9225-2602
7	12일	이준호	062) 952-8590	43	17일	모순자	010-6610-5880
8	13일	김기태	010-4633-8667	44	18일	최옥기	010-4323-7101
9	14일	김문옥	010-2565-2602	45	19일	유금혜	010-9455-9579
10	15일	김명관	011-640-9608	46	20일	이봉순	016-9601-3784
11	16일	이현일	011-625-6945	47	21일	황정선	016-640-9608
12	17일	이동만	011-609-0774	48	22일	임현옥	010-3907-2360
13	18일	곽세종	011-9607-9883	49	23일	장현자	010-3114-9886
14	19일	송희종	010-4370-7579	50	24일	조선경	010-5469-1670
15	20일	옥 룡	011-616-2360	51	25일	김복희	010-2622-9919
16	21일	김종철	010-7735-9917	52	26일	이난순	010-6310-2827
17	22일	최상윤	010-5059-8475	53	27일	박미정	010-3619-0362
18	23일	김요상	011-602-0724	54	28일	이정자	010-5509-0809
19	24일	김희중	010-5468-1670	55	29일	서점순	010-8944-8640
20	25일	진영만	010-605-2902	56	30일	김숙자	010-2360-5214
21	26일	김태석	010-8777-2827	57	12/1일	김동해	019-406-2586
22	27일	오광록	010-7603-9851	58	2일	방정원	010-9474-2787
23	28일	유영만	010-3629-3477	59	3일	진윤희	010-7488-9851
24	29일	김영근	011-638-1538	60	4일	장미옥	010-7704-9917
25	30일	한만희	011-9739-0484	61	5일	문채숙	010-5643-0198
26	31일	손문옥	011-9606-6487	62	6일	양혜숙	010-6873-2437
27	11/1일	조윤기	016-681-3784	63	7일	김점자	010-6653-0559
28	2일	한경택	011-633-7200	64	8일	김숙경	010-8245-5064
29	3일	장기술	011-9604-0577	65	9일	허경자	011-9607-8475
30	4일	최재현	010-6231-4589	66	10일	방봉순	011-605-3310
31	5일	박의하	010-2231-4684	67	11일	황생자	010-9877-1729
32	6일	장승준	010-6609-2782	68	12일	권화숙	010-7708-4315
33	7일	이대남	010-2615-5064	69	13일	김순심	010-7721-3238
34	8일	김재한	011-617-0571	70	14일	김용덕	010-2636-2114
35	9일	서진옥	010-5446-5357	71	15일	유양덕	010-5339-1831
36	10일	이병권	010-6203-8640	72	16일	김정숙	010-2467-2113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다	같	이
대표기도	문	중	승
특송	교	역	자
설교	최	지	혁
개인기도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 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로운 결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 부흥집회를 은혜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 ●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직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 복직관 건립을 위해 지혜와 인재와 물질을 허락 하소서
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국가 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